

제주 제2공항 해법찾기 ‘첩첩산중’

국토부 기본계획안 열람·의견수렴 오늘 마무리
도의회 공론화 특위 결의안은 오는 15일 재논의
합의점 난망... 제2차 정례회 ‘강대강’ 정국 예고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놓고 찬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들어 서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4일 종료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 제출을 도에 공식 요청했고, 제주도는 부서 검토의견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

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아 정리할 예정이다.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항운영권 참여 여지를 열어둔 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등의 계획에 따른 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세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 공론화와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도민 공론화 문제는 논란 끝에 오는 15일 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최식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

성 결의안은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로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위 운영에 의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집행부측에서 공론화 거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례회 개최와 더불어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한달간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관가 안팎에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전격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 혁신기업들의 축제 ‘2019 스타트업·벤처기업 스피치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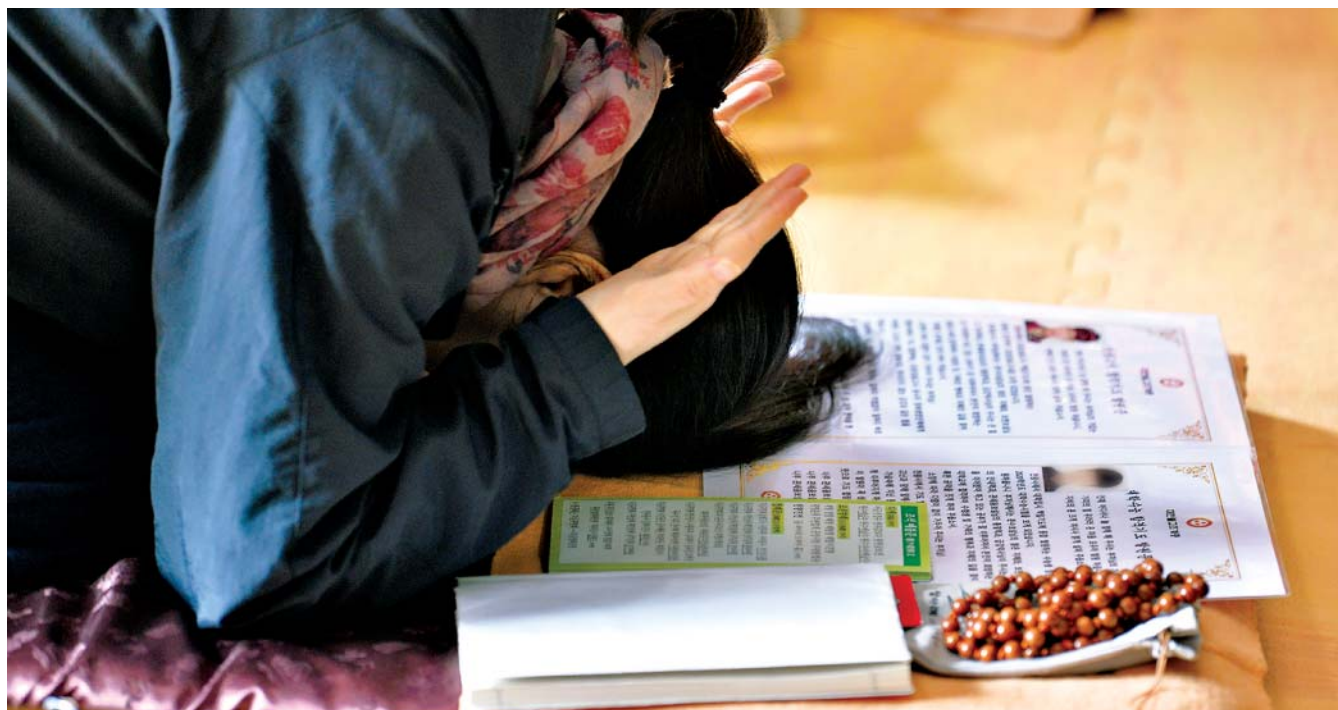
16일 혁신성장센터서 열려
사례 공유·기업현장도 방문

도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2019 스타트업&벤처기업 스피치아웃’이 오는 16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열린다. 제주 혁신기업들의 축제인 이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0개 기업지원기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제주가 꿈꾸는 새로운 내일, 제주를 바꾸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를 통해 도전과 실패, 성공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신생기업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자는 공유마당 등 새로운 변화 흐름에 대응한 만남과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학습에 게임기술을 접목한 언어학 습업을 개발해 KDB넥스트라운드로부터 3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캐치잇플레이 최원규 대표가 제주에서 창업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은 경험담을 발표할 예정이며, 설립 3년 만에 ‘디지털 스타프’ 서비스를 개발해 제주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박스트리 지광재 대표, 제주 캐릭터와 제주 천연원료를 활용한 유아용 유기농 캐릭터 화장품 개발에 성공한 ㈜엘로이즈 조운우 대표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방법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참여기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지역 스타트업, 벤처기업 CEO 또는 임원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참가신청은 오는 8일까지 제주스타트업협회(720-3030)에서 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4차 청년반상회 개최 도내 청년 50여명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차 청년반상회를 청년의 ‘꿈 그리다, 만들다, 이루다’를 주제로 청년 50여명과 함께 지난 1일 한림 블루하와아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반상회는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연결망을 확대해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으로, 지역별(서귀포시→읍·면·동 지역→제주시→읍·면·동 지역)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청년반상회는 청년자율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도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대한 어려움과 자기탐구 및 진로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다각화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지원사업 참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며 청년의 자리에서 미래를 위한 길을 찾는 과정에 대해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청년미래설계지원을 위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인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과 일성장 프



수능 D-10... 애타는 모정(母情)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을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3일 제주시 천왕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로그램 참여경험을 공유하고 자아탐구와 진로모색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제주도는 소개했다.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은 자기탐구를 위한 멘토링 및 도의체류비 전액이 지원됐는데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된 2019 갭이어프로그램에 총 52명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만족도는 98.1%를 기록했다. 일성장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실제 직업체험(6개월)

이 이뤄졌는데 올해 13개기업에 총 23명 참여했다. 이들의 만족도는 82.4%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반상회는 청년세대의 이슈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올해까지 총 4회 진행됐다. 조상윤기자

탈 많던 카지노 프로모션 손본다

제주도, 1일 운영규정 고시
업체간 프로모션 방식 통일

제주도는 카지노 프로모션 운영규정을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카지노 프로모션이란 카지노의 입장객 증가와 매출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의 자발적 해석 및 관행에 의해 이뤄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다. 특히 과도한 프로모션 바우처 발행 및 칩스 제공은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

기도 했다. 이번엔 고시된 운영규정으로 카지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프로모션 운영 방식이 통일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행총액, 바우처의 상한액, 발행 및 회수, 규격 및 기준, 관리대상 구성, 발행의 제한, 유효기간, 지위승계·폐기 등 프로모션 용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카지노 마케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기획 7면...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개최를 축하합니다.

69th 장인정신의 한라산소주

SINCE 1950

도민과 함께한 69년!

제주도와 함께 성장하는 100년 향토기업으로
지역의 가치를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69년간 힘이 되어주신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전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제주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주)한라산은 순수향토자본으로 운영되며 매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제주지역에 환원합니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